

민주 대선주자 국민면접·TV토론으로 흥행몰이

200명 국민 면접관 상대

블라인드·집중 면접 진행

이낙연·최문순·이광재 상위권

7일 정책 발표 순서 우선 선택권

TV토론 이재명 대 반이재명 격돌

기본소득·지역 역차별 발언 공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9명에 대한 '국민 면접'에서 이낙연 후보가 1위, 최문순 후보가 2위, 이광재 후보가 3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4일 충북 청주시 CJB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 경선 '국민면접'의 점수 합산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민 면접은 200명의 국민 면접관을 상대로 9명의 후보가 1분씩 답하는 '1부 블라인드 면접'과 전문가 패널 3명이 각 후보에게 질문하는 '2부 1대3 집중 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1·2·3위를 차지한 3명의 후보는 오는 7일 진행되는 공약 발표 행사인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 순서 우선 선택권이 주어진다. 국민 면접관은 총 지원자 5365명 중 성별·연령별로 200명을 고르게 선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은 국민 앞에 뼈를 깎는 쇠신을 약속했다"면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워킹정신으로 대선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그런 경선이 되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밤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첫 TV토론에서 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선두주자

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정세균 후보는 "기본소득 100만원 얘기했다가 재원대책 없다고 하니 50만원으로 줄였다가 전날은 1번 공약이 아니라고 했다"며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냐"고 직격했다. 박용진 후보도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가세하면서 "세출조정 등으로 50조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렵지(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는 아직 하나도 공약한 게 없다"며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로는 공정 상장이 1과제이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완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부의 대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박 후보의 "50조원 발언"에는 "본인은 못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영남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영남이) 과거 군사정권 정치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취했다. 추 후보는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향해 "둘 다 경선 승복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선대위원장을 열심히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 "네"라는 답을 끌어냈다. 토론이 치열해지자 "좋은 정책을 숙성·발전시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를 거짓말이라고 날 선 비판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보기에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지난 3일 열린 첫 TV토론에 이어 이날 국민 면접이 시작되면서 후보들 간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경기 상생협력 회의가 2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관계자들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경기도 상생협력회의...재정분권 강화 등 공동 노력키로

전남도청서...6개 협력과제 합의

전남도와 경기도가 상생협력 회의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 기초에 재정 분권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경기도는 특히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투기 등 각종 문제가 지나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아예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전남도와 경기도는 지난 2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1년 전남-경기 상생협력 회의'를

열었다. 이날 상생협력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양 시도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존 교류·협력 사항은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공동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개 과제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개 공동 협력과제는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해양쓰레기·폐기물 저감 공동노력 ▲경기 '디지털뉴딜 AI 엑스포' 및 전남 'NEXPO in 순천' 성공적 개최 지원 ▲양 연구원

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방안 공동연구 추진이다.

김영록 지사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합의사항 외에도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 협력을 강화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우선순위 부여,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사필귀정"...민주당 '장모 실형' 윤석열 만나

지도부·대권주자 일제히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장모 최씨가 지난 2015년 시작된 수사당시엔 입건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에서 기소된 것을 부각하면서 윤 전 총장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으로, 윤 전

총장은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라"면서 "검찰총장 책임 시엔 장모를 지켜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주겠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국민들은 윤석열을 도려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해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연합뉴스

차기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44.7%·윤석열 36.7% '양강체제'

글로벌리서치 조사

갤럽 선호도조사 윤 25%·이 24%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으로 제쳤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글로벌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를 한 결과, 이 지사는 44.7%, 윤 전 총장은 36.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8%포인트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남녀 응답자 모두 이 지사 지지율이 윤 전 총장보다 앞섰다. 연령별로도 이 지사는 만 18세~50대에서 앞섰고, 윤 전 총장은

60~70대 이상에서만 우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이 지사는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윤 전 총장은 서울, 대구·경북, 강원·제주에서 각각 앞섰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각 지난 1일과 지난 달 29일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을 갖고 차기 대권 도전을 본격화했다. 시기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일에는 윤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당일 재판 결과가 이번 지지율 조사에 즉각 반영됐지는 불확실하나, 'X파일' 논란에 이어 장모 의혹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간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묻은 결과, 윤 전 총장이

25%, 이 지사가 24%의 지지율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지난 조사에선 이 지사가 3%포인트 우세했지만, 윤 전 총장이 4%포인트 오르며 이 지사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6월29일)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이벤트 효과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 2%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